[UCI]I804:24011-200000237635

2009年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소세키의 『마음(こころ)』 연구

- 「선생님」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宥 定

소세키의 『마음(こころ)』 연구

- 「선생님」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

2009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宥 定

소세키의 『마음(こころ)』 연구

指導敎授　曺 榮 錫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宥　定

李宥定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副敎授　金　熙　照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曺　榮　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副敎授　丁　意　祥　印

2008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 ii
第1章　서　론 ····· 1
第2章　본　론 ····· 3
1) 『선생님과 나』에서의 「선생님」,「나」의 이중성 ····· 6
2) 『양친과 나』에서의「나」,「나의 가족」의 이중성 ····· 14
3) 『선생님과 유서』에서의「나(선생님)」의 이중성 ····· 21
(1) 탈지식인의 성격 ····· 21
(2) 이기적인 성격 ····· 32
(3) 운명론자적 성격 ····· 40
(4) 정신적 타자로서의 성격 ····· 43
第3章　결　론 ····· 46
参考文献 ····· 48

ABSTRACT

A Study on Natume Soseki's Characters of 『KOKORO』

You-Jung Lee
Advisor : Prof. Young-Suk Cho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KOKORO』(『The Mind』)written by Natsume Soseki is one of the so-called late trilogy published as a serial in 100 installments in ASAHI newspapers in OSAKA, Tokyo from April 20 to October, 1914.
I am going to discuss duplicity in his works, especially in 『KOKORO』(1914) focusing of duplicity of the characters, but not of the author.
What appeared in the first part (「Sensei and I) is duplicity of the 「Sensei」and of「I」. The deceit of the 「Sensei」comes from the past experiences. Moreover, 「I」 is represented as an uncertain intellectual who cannot doing anything between a premodern mentality (his farther) and the modern one (Sensei) even if the body of 「I」is living in modern society.
The second part(「Parents and I」) is about those who live in the Meiji era and shows the unavoidable contradictoriness or duplicity through the image of 「My Father」 and 「My Family」representing the past.

Finally, the third part(「Sensei and His Testament」) shows a type of post-intellectuals who rationalize themselves while living irrationally and contradictorily isolated from all society. In addition, it is obvious that all human beings express their duplicity when they face with critical moments even though they try to have the perfect lives because of their innate egocentricity. It is also contradictory that humans who are all alone are doomed to die but they can have the choice of it. 『KOKORO』 says about the negative consciousness of the life and humans as well as the seamy side of humans, especially, in image of 'Sensei' in the third part 『Sensei and His Testament』. The author, SOSEKI, shows the duplicity of the human,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natural thing, via this book.

第1章 서 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로 표기)는 10여년간(1905년~1916년)의 작가생활 동안 똑같은 성향의 작품을 쓴 적이 없었다. 이것은 작품세계의 변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의 작품 속 작중인물들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이중성을 띤다. 소세키 작품 가운데 이중성이 가장 잘 표출된 것으로 생각되는『마음(こころ)』[1](이하 『마음』으로 표기)을 중심으로 論하고자 한다.

먼저 이제까지의 『마음』에 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검토해보면 일본에서 발표된 소세키 문학 연구물 가운데 『마음』이 전체의 40%(1985년 이후 발표된 연구물)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2]. 또한 최근 일본에서의 『마음』의 주된 연구 테마는 각 편에 나타나는 「나(私)」와 「선생님」의 표현차이 등에 주목한 연구물이 다량으로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하・선생님과 유서」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고찰에 대한 반성으로 보여 진다. 구체적인 연구 테마로는 「『마음』에 존재하는 화자(話者) 구조 분석」,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의 죄의식과 죽음 연구」,「『K』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동기」,「선생님의 자살 동기」,「가정의 붕괴와 인간관계」, 「명치정신(明治精神)과 순사(殉死)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고찰」, 「선생이 죽고 난 이후 나(私)와 시즈(静)의 미래 관계 분석」[3]등이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최근까지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된 연구 테마로는 「선생의 죽음」,「명치정신고찰」,「아집과 죽음」,「여성상 탐구」,「작품에 나타난 에고이즘 고찰」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소세키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다양한 테마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권혁건(「한국에 있어서

---

1) 1914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東京, 大阪 양 朝日新聞에 110회에 걸쳐 연재 됨
2) 권혁건외,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 (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
3) 정상철, 나쓰메 소세키 문학연구, 제이앤씨, 2001

나쓰메 소세키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2001)은 첫째, 1970년대 나쓰메 소세키 문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시기에 오경자, 오영원 등의 『마음』에 관한 논문의 영향. 둘째, 작품 내용이 교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한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두 남자 주인공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연구자들에게 어필. 셋째, 다양한 번역본이 젊은 세대 연구자에게 영향을 줌. 넷째, 1980년대 이후 일본과 국내에서 발표된 풍부한 양의 『마음』에 관한 연구물이 이 작품을 연구하고 싶은 동기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4].

이상으로 일본과 국내에서의 『마음』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論者는 작중인물들의 치밀한 성격 분석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마음』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의 이중성 고찰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마음』을 「상(上)· 선생님과 나」·「중(中)·양친과 나」·「하(下)· 선생님과 유서」로 나누어 「상·선생님과 나」에서는 「선생님」과 「나」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보고, 「중·양친과 나」에서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보여 지는 이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論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하·선생님과 유서」에서는 「선생님」의 이중성에 대한 최해수[5]의 분류방법에 입각하여 첫째 탈지식인의 성격, 둘째 이기적인 성격, 셋째 운명론자적 성격, 넷째 정신적 타자로서의 성격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주요 텍스트는 이와나미문고판(2002)을 사용하고 인용문은 論者가 번역 처리하고 끝에 페이지 수만을 밝혔다.

---

4) 권혁건외,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 (こころ) 』연구, 제이앤씨, 2003

5)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 일본연구 제 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2002,185~207p
근대지식인으로서의 「선생님」의 성격을 탈지식인적 성격, 이기적인 성격, 운명론자적 성격, 정신적타자로서의 성격으로 나누어 『마음』의 「선생님」의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참조

第2章　본　론

『마음』은 1914년 4월 20일부터 같은 해 8월 10일까지, 110회에 걸쳐 동경,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동시 연재된 소설이다. 소세키는『마음』을 집필할 당시 아사히 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야마모토 마츠노스케(山本松之助) 앞으로 한통의 편지를 보낸다.

> 이번에는 몇 편의 단편을 써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마다 각기 다른 제목을 붙여 넣을 작정인데, 우선 이야기 전체의 제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으로 해 두겠습니다.
> 今度は短編をいくつか書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その一つ一つには違った名をつけて行く積りですが予告の必要上全体の題が御入用かとも存じますゆえそれを「心」と致しておきます[6)]。

이것은 소세키가 앞서 발표한 『피안저편까지(彼岸過迄)』, 『행인(行人)』과 같은 형식의 소설을 쓰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아사히신문에 연재될 당시 이 작품은 『마음』의 제호(題号) 하에 「선생님과 유서」라는 부제(副題)로 끝까지 연재되었다. 그러던 중 『마음』의 연재가 끝난 후 소세키가 이와나미서점에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3부작 형식으로 나누어 간행 한 것이다.

> 전체 제목을 『마음』으로 하고 이야기의 첫 단편 「선생님의 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 부분을

6) 河明惠, 「『明暗』における女主人公たちの心理様相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7

「상・선생님과 나」・「중・양친과 나」・「하・선생님과 유서」로 다시 나누어 간행한 것이 지금의 『마음』이다.
全体の題を『心』としその最初の短編「先生の遺書」を書き始めたが、それが思いのほか長くなったため、その部分を「上　先生と私」「中　両親と私」「下　先生の遺書」の三章に分けなおして刊行したのが現在の『こゝろ』である。7)

결국 이것은 형식과 내용상의 이중성을 초래하여 내용상 하나의 이야기가 형식상 3편의 단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 조영석은 소설의 화자가 두 명임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마음』은 화자(語り手)가 둘이다. 이것은 「上・선생님과 나(先生と私」,「中・양친과 나(両親と私)」의 경우 청년 나(私)이고, 「下・선생님과 유서(先生と遺書)」는 주인공 선생님 자신이 나(私)로서의 화자라는 점이다.8)

소설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선생님과 유서」에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상・선생님과 나」・「중・양친과 나」의 시점인물은 청년인 「나」이고, 「하・선생님과 유서」는 「선생님=나」인 것이다. 즉 3편을 통틀어 실질적인 주인공이 「선생님」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상의 독립성이 엿 보인다. 때문에 「상・선생님과 나」・「중・양친과 나」・「하・선생님과 유서」로 분류하여 論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오경자도 『마음』을 형식적인 면과 내용상의 면으로 나누어, 형식상

7) 江藤淳編、『夏目漱石』, 朝日新聞社, 1977, 72p
8) 조영석, 「소세키의 『마음』연구」,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 180p

단편성은 높으나 내용상의 단편성은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 첫 두 장은 독립성이 부족하여, 「선생님과 유서」의 도입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 はじめの二章の独立性は乏しく、わずかに「先生と遺書」への導入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に過ぎないとも見られる。9)

오경자에 따르면 내용상 「상・선생님과 나」와 「중・양친과 나」는 「하・선생님과 유서」의 도입부로서의 역할이 짙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의 두 편을 「하・선생님과 유서」의 서문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하・선생님과 유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대배경과 작중인물의 성격 등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상・선생님과 나」에서는 당시 일본인의 서양인에 대한 인식과 명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엿 볼 수 있으며, 또한 「중・양친과 나」에서는 시골사람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나 가치관을 살필 수 있다. 즉 동경에서 공부를 마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인습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양친」과「나」의 갈등 장면에서는 당시의 젊은 지식인과 낡은 인습에 사로 잡혀 외견상의 의식을 중시하는 부모님과의 대립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면과 내용 면에서의 이중성은 작품이 작자의 처음 의도대로 쓰여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여기에 대해 에토 준(江藤淳)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즉 작품의 기본적인 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지만, 뜻하

9) 오경자 「作品研究夏目漱石〈こころ〉」연군논문집, 성신여자대학교, 1974

지 않게 장편화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정을 생각해보면, 작품에 이야기를 덧붙여가는 과정에서 작자의 심정이나 새롭게 발견된 것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발생했음에 틀림없다.
つまり作品の枠組はかなり以前から形成されていたわけだが、思いのほか長編化したいという事情を考えると、作品の肉付けの過程での作者の心情、新たに発見されたものに注意することも必要になってくるに違いない。[10]

즉 작품의 틀은 이전부터 구상해 놓고 있었으나, 생각지 않게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미리 상정(想定)해 놓은 틀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3부작 형식에 대해 소세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바가 없으므로 論者는 기존의 3부작 형식에 입각하여 論을 전개한다. 나아가 앞의 두 편에서 그려진 배경묘사를 염두 해 두고 「하・선생님과 유서」의 이야기에 중점을 둔다.

1) 『선생님과 나』에서의 「선생님」,「나」의 이중성

본격적으로 『마음』의 작중인물의 이중성에 대해 「선생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상・선생님과 나」에서 작중인물의 이중성을 「선생님」과 「나」를 중심으로 論을 전개 한다. 「상・선생님과 나」에서는 「선생님」과 「나」와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시작 되는데, 서술자인 「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나」의 이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을 떠난 친구로 부터 꼭 놀러 오라는 엽서를 받고, 계획에도 없던 가마쿠라로 향하지만, 「나」를 초대한 친구는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한지 3일도 채 지나지 않아,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급전

10) 江藤淳編,『夏目漱石』,朝日新聞社, 1977, 72p

을 받고 가마쿠라를 떠나게 된다. 가마쿠라에 혼자 남게 된 「나」의 관심은 이윽고 타인(他人)에게로 향하게 되고, 바로 그 관심의 대상이 「선생님」이며, 「선생님」 또한 마치 관심이라도 받고 싶은 듯 당시로서는 드문 서양인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이것에 대해 송현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때문에, 가마쿠라에 도착한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친구가 떠나게 된 것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된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생님」쪽에서도 외국인과 함께 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며, 친구가 떠나버린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선생님」쪽으로 나의 관심이 향하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나」와 「선생님」의 만남은,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연적인 것이 된 것이다.
>
> だから、鎌倉に着いてから三日も経たない内に友だちが去ってしまうのは、「先生」との出合いのために準備された設定に思われる。また「先生」の方からも外国人といっしょということで、誰かの視線を無意識的に強く要求して、友人に去られた「私」にし、自然に「先生」の方へ「私」の関心を向けさせたわけである。こう考えて見ると、「私」と「先生」との出合いは、彼らにとっては互いの存在が必要とする必然的であったようである。[11]

하지만 나의 눈에 비친 「선생님」은 세상 사람들과 오랫동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혼자 고독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별반 숨기려는 기색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며, 「나」로 하여금 거리감마저 느끼게 한다.

---

11) 송현순 「『こころ』における語り手としての私」, 논문집, 우석대학교, 1992

선생님과 나의 교제는, 「선생님과 나」장에서는 아직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 청년인 나에게는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반복하는 선생님의 내부에는,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先生と私の交際とはいっても、「先生と私」の章ではまだ先生の本当の姿は青年の私にはわからない。わかるのは「私は寂しい人間です」と繰り返す先生の内部に、何かしら「正体のしれない恐ろしいもの」が潜んでいることである。12)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가운데 「선생님」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의 원인이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소설 전반(全般)에 걸쳐 보여 지는 이러한 이중성은 과거에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인간의 이중성과 결부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선생님」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나는 요전의 서양인에 대해 물어 보았다. 선생님은 그 서양인의 특이한 점이라든가, 지금은 가마쿠라에 없다는 사실 등을 말해 준 뒤, 일본인들과 좀처럼 교제를 갖지 않는데 그런 외국인과 친하게 된 것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어디선가 뵌 듯한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어렸던 나는 그때 막연히 선생님도 나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내심 선생님의 그런 대답을 예상하며 기다렸지만, 잠시 무언가 고민하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글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네 얼굴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 아닌가?”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私はこの間の西洋人の事を聞いてみた。先生は彼の風変りのところや、もう鎌倉にいない事や、色々の話をした末、日本人にさえあまり交際をもたないのに、そういう

12) 江藤淳編,『夏目漱石』,朝日新聞社, 1977, 72p

外国人と近付きになったのは不思議だといったりした。私は最後に先生に向かって、どこかで先生を見たように思うけれども、どうしても思い出せないといった。若い私はその時暗に相手も私と同じような感じを持っていはしまいかと疑った。そうして腹の中で先生の返事を予期してかかった。ところが先生はしばらく沈吟したあとで、「どうも君の顔には見覚えがありませんね。人違いじゃないですか」といったので私は変に一種の失望を感じた。13p

「선생님」은 자신과 같은 일본인들과는 좀처럼 교제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친하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선생님」의 평소 생활방식에도 엿볼 수 있는데, 좀처럼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갖지 않는 「선생님」이 가마쿠라 해수욕장에서는 뜻밖에도 외국인과 등장한다. 즉 「선생님」주변의 사람들과는 이렇다고 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전혀 외부의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는 모습에서 「선생님」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서 뵌 것 같다는 「나」의 호의적인 질문에 대해, 어디까지나 냉담한 「선생님」의 반응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생님」의 이중성에 「나」 또한 「선생님」의 태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며, 또 실망을 반복한다. 이윽고 반복되는 「선생님」과 「나」와의 이러한 관계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선생님」의 고독과 외로움은 「선생님」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은 버릇처럼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선생님」스스로가 만들어낸 고독인 것이다. 이점에서도 論者가 말하고자 하는 이중성이 드러난다.

선생님은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자주 실망시켰다. 선생님은 그 사실을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전혀 모르는 듯했다. 하지

만 그런 사소한 실망감이 반복되어도 그로 인해 선생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한 일말의 불안감에 떨면서도 오히려 나는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앞으로 나가서다 보면, 내가 예상하던 일들이 언젠가는 눈앞에서 만족스럽게 펼쳐지리라고 생각했다. …(중략)…

“또 왔군.”

“예, 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웃었다. 분명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쾌하기까지 했다.

私はこういふ事で先生から失望させられた。先生はそれに気が付いてゐる様でもあり、又全く気が付かない様でもあった。私はまた軽微な失望を繰り返しながら、それがために先生から離れて行く気にはなれなかった。寧ろそれとは反対で、不安に揺かされる度に、もっと前へ進みたくなった。もっと前へ進めば、私の予期するあるものが、何時か眼の前に満足に現れて来るだろうと思った。…(中略)…

『又来ましたね』と云った。

『ええ来ました』と云って自分も笑った。私は他の人からこう云はれたらきっと癪に触ったろうと思ふ。しかし、先生にこう云われた時は、丸で反対であった。癪にさわらないばかりでなく却って愉快だった。14p

작품에 나타나는 「선생님」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선생님」의 이중성은 특히 분명하지 않은 언어 사용으로 인한 말끝 흐리기로 대화의 상대로 하여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중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내가 또 실수를 했군. 약을 올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설명을 하려 했는데, 또 자네를 약 올린 셈이 되고 말았네 그려. 이거 정말 어쩔 수

없는걸.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지. 어쨌든 사랑은 죄악이라네. 알겠나? 그리고 신성한 것이기도 하고."

『又悪い事を云った。焦らせるのが悪いと思って、説明しようとすると、其説明が又あなたを焦らせるやうな結果になる。どうも仕方がない。此問題はこれで止めましょう。とにかく恋は罪悪ですよ、よござんすか。さうして神聖なものですよ。』38p

즉 처음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명치 않은 의사전달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밝히지 못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애매함이 「선생님」의 이중적으로 보이게 하다. 이윽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선생님」은 「나」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털어놓고자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나」에게 사실을 털어 놓으므로서 자신의 추악함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죄값을 받겠다고는 하나 단 한 사람 아내에게만은 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데에서 또 하나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선생님과 유서」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사실을 궁금해 하는 「나」에게 「선생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지만 이윽고 또 언제가 때가 되면 말 하겠노라는 말을 남기기도 한다.

"나는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네."

"아니 감추고 있습니다."

"자네는 나의 사상이라든가 의견, 과거 등을 뒤죽박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빈약한 사상가이지만, 내 자신의 머리로 정리하여 만들어 낸 사고를 무턱대고 감추지는 않네.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 과거를 전부 자네 앞에서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지."

『私は何も隠してやしません』

『隠してゐらっしゃいます』

『あなたは私の思想とか意見とかいふものと、私の過去とを、ごちゃごちゃに考えてゐるんぢゃありませんか。私は貧弱な思想家ですけれど、自分の頭で纏め上げた考へを無暗に人に隠しやしません。隠す必要がないんだから。けれども私の過去を悉くあなたの前に物語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なると、それは又別問題になります。』

82p

또한 「선생님」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생긴 사람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의심하려 들지만, 반대로 타인이라면 타인인 「나」에게는 과거의 사실을 고백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서 완벽한 타인에 가까운 외국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선생님」의 모습과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과거의 인과응보로 인해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지. 실은 자네도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자네만큼은 의심하고 싶지가 않아.

『私は過去の因果で、人を疑り付けてゐる。だから実はあなたも疑ってゐる。然しどうもあなただけは疑りたくない。83p

나아가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불신감은 세상에 대한 불신감마저 생성해 내었음을 밝히지만, 결국 그 믿지 못하는 존재에게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숨기고만 싶어 하던 과거를 밝히려 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선생님」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는 이중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렇지만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팔 벌려 안아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중략)…둘도 없는 아버님의 병환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자네가 집을 비울 수 있겠는가. 오리혀 아버님이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내가 실례를 범했다고 할 수 있지. 사실 나는 그 전보를 칠 때 아버님의 일일랑 까맣게 잊고 있었다네. 그런 주제에 내가 도쿄에 있을 때는 난치병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던가. 나란 사람은 이런 모순 덩어리라네.

人間を愛しうる人、愛せずにはゐられない人、それでゐて自分の懐に入らうとするものを、手をひろげて抱き締める事の出来ない人、これが先生あった。…(中略)…あなたの大事なお父さんの病気をそっち退けにして、何であなたが宅を空けられるものですか。そのお父さんの生死を忘れているような私の態度こそ不都合です。私は実際あの電報を打つ時に、あなたのお父さんの事を忘れていたのです。そのくせあなたが東京にいる頃には、難症だからよく注意しなくってはいけないと、あれほど忠告したのは私ですのに。私はこういう矛盾な人間なのです。144p

「상・선생님과 나」에서의 「선생님」과 「나」의 이중성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선생님」의 이중성은 과거의 경험과 불과분의 관계가 있었고, 「선생님」 자신의 무의식적인 언행을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에 「나」 또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양친과 나」에서는 「나」와 「나의 가족」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양친과 나』에서의「나」,「나의 가족」의 이중성

「중・양친과 나」에서는 메이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나」는 「아버지」의 깊어진 병환 소식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의 병 보다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 부모님은 당사자인 내가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축하 자리를 마련하려 하지만, 때마침 명치천황의 서거에 내가 바라던 대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천황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내 같은 병이었다는 것과, 먼저 세상을 떠나지 못한 죄스러움에 사로잡힌다. 또한 「나」와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인가의 대한 문제로 다투며 나는 고향집인 이곳이 답답하기만 하다.

「중・양친과 나」에서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보여 지는 이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論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상・선생님과 나」에서 「나」는 염원하던 졸업을 맞이하게 된다. 논문에 대한 평이 그다지 좋지 않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졸업식이 끝나자 곧장 「선생님」 집으로 향한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선생님」과의 저녁식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의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선생님」의 탐탁치 않은 반응에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졸업한 것에 대해 「선생님」과는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에 대해 「나」는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 "무사히 졸업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 아버지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 나는 마음속으로 지금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과 졸업식이 있었던 그날 밤에 선생님 댁의 식탁에서 "축하하네"라고 말했던 선생님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나는 말로는 축하를 해 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방하고 있었던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아주 귀한 일이

라도 된 듯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보다도 고상하게 보였다. 심지어 나는 아버지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촌스러움에 불쾌감을 느끼기조차 했다.
『卒業が出来てまあ結構だ』
父は此言葉を何遍も繰り返した。私は心のうちで此父の喜びと、卒業式のあった晩先生の家の食卓で『お目出たう』と云はれた時の先生の顔付とを比較した。私には口で祝ってくれながら、腹の底でけなしてゐる先生の方が、それ程にもないものを珍しさうに嬉しがる父よりも、却って高常に見えた。私は仕舞に父の無知から出る田舎臭い所に不快を感じ出した。97p

즉 같은 상황을 놓고 「선생님」과 「아버지」의 전혀 다른 반응에 「나」는 양쪽 모두의 반응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만약 「아버지」의 반응, 혹은 「선생님」의 반응 중 어느 한쪽의 반응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그들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을 것이다. 무언가 비교기준이 생기므로 인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 좀 전까지 부정했던 「선생님」의 반응에 이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나의 아버지」가 보이는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는 오랫동안의 지병으로 인해 이따금 자리에 눕곤 하셨다. 그리고 이번 「나」의 귀향을 맞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기라고 한 듯,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하지만 괜찮아지실 게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멀쩡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건강하다는 암시를 부여하면서도, 당장이라도 자신이게 덮쳐 올 위험을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然し大丈夫だらう。おれの様な下らないものでも、まだこうしてゐられる位だから』

父は自分の達者な保障を自分で与えながら、今にも己れにおちかかって来さうな危険を予感してゐるらしかった。106p

「아버지」는 오랫동안의 지병과 천황의 병환 소식을 접하고, 내심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연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음을 위의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를 빌려 말하면 일종의 '반동형성[13)]' 이라는 것으로 아버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면 감지할수록 더욱 더 좋아진 듯이 보이려하는, 즉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나」의 장래를 걱정하면서도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렇다 할 직업도 갖지 않은 「선생님」을 불안하게 생각하면서도 바로 그 선생님에게 나의 장래를 맡기려 한다.

"그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틀림없이 기억하고 계실 터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이지? 제가 그렇게 존

13) 반동형성: 금지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반대의 경향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을 제어하려는 심적인 태도 또는 습성을 말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강박신경증 환자에게서 발견한 것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방어기제(mechanism of defense)의 일종이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가 친구나 개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안전한 방식의 욕구해소의 통로도 이에 포함되지만, 억압된 충동이 위장된 출구로 나가는 전위(displacement)와 같은 방식도 있는데, 이는 공격성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친절해지는 것을 말하며 과장·강박성 등이 특징이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0402

경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은연중에 나를 공격했다. 아버지는 쓰임이 있는 사람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틀림없이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듯했다.

“나 같은 사람도 월급이라는 걸 받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놀고 있지도 않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일자리를 찾아 줄 게다. 한번 부탁해 보렴.”

『其先生は何をしてゐるのかい』と父が聞いた。

『何もしてゐないんです』と私が答えた。

私はとくの昔から先生の何もしてゐないといふ事を父にも母にも告げた積りでゐた。さうして父はたしかに夫を記憶してゐる筈であった。

『何もしてゐないと云ふのは、またどういふ訳かね。お前が其れ程尊敬する位な人なら何かやってゐるさうなものだがね』

父はこう云って、私を諷した。父の考えでは、役に立つものは世の中へ出てみんな相当の地位を得て働いてゐる。

『おれの様な人間だって、月給こそ貰っちゃゐないが、是れでも遊んでばかりゐるんぢゃない』

父はこう云った。私はそれでもまだ黙ってゐた。

『お前のいふ様な偉い方なら、きっと何か口を探してくださるよ。頼んでご覧なのかい』と母が聞いた。111p

이렇다 할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선생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이내 「나」의 장래를 부탁하려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이중성을 발견 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나」와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대를 이을 것인가의 대한 문제로 다투게 된다.

「형」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이내 「형」은 자신을 앞세우곤 한다. 다음 대화는 「선생님」에 관해 「나」와 「형」이 나눈 대화로 「형」 또한 「아버지」가 보인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형은 필경 들었어도 모른다고 했을 것이다. 나는 형에게 억지로 선생님을 이해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지만 화가 났다. 또 형다운 버릇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형은 '선생님, 선생님'하며 내가 존경하는 이상 그 사람이 반드시 저명인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름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가치를 찾는단 말인가. 형의 생각은 이런 점에서는 아버지와 똑 같았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라는 속단을 내리는 것과는 달리 형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태평하게 놀고 있는 것은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에고이스트는 그래서 안 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것은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지.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 안돼."

나는 형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에고이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었다.

"그래도 그 사람 덕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구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던데."

兄は必竟聞いても解らないというのであった。私から見ればなにも無理に先生を兄に理解してもらう必要はなかった。けれども腹は立った。また例の兄らしい所が出て来たと思った。

先生先生と私が尊敬する以上、その人は必ず著名の士でなくてはならないように兄は考えていた。少なくとも大学の教授ぐらいだろうと推察していた。名もない人、何もしていない人、それがどこに価値をもっているだろう。兄の腹はこの点において、父と全く同じものであった。けれども父が何もできないから遊んでいるのだと速

断するのに引きかえて、兄は何かやれる能力があるのに、ぶらぶらしているのは詰らん人間に限るといった風の口吻を洩らした。

「イゴイストはいけないね。何もしないで生きていようというのは横着な了簡だからね。人は自分のもっている才能をできるだけ働かせなくっちゃ嘘だ」

私は兄に向かって、自分の使っているイゴイストという言葉の意味がよく解るかと聞き返してやりたかった。

「それでもその人のお蔭で地位ができればまあ結構だ。お父さんも喜んでるようじゃないか」133p

즉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 또한 「아버지」가 보인 것과 같은 동종의 이중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불일치를 보이면 부정해버리고 말지만 이내 무언가 의지하여 얻어 낼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무언가에 의지하려 든다. 그리고 이것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과 외부적 기준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중성으로 보인다.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조영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찍이 일본 역사상 메이지 시대만큼 동・서양의 문명이 첨예하게 대립한 때는 없었다. 일본 사회를 지탱해 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은 문명개화(文明開化)에 따라 새롭게 유입된 서구의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가치관의 카오스 상태에 일본 사회는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14]

「중・양친과 나」에서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보여 지는 이중성

14)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 문학세계』, 보고사 , 2001, 14p

에 초점을 맞추어 論을 전개했다. 구시대를 상징하는 「아버지」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가치관의 차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과 외부적 기준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중성은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힐 때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하・선생님과 유서」에서는 「나(선생님)」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선생님과 유서』에서의「나(선생님)」이중성

『마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하・선생님과 유서」에서는 주로 「선생님」 의 이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論하고자 한다.

「선생님」의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 2002)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탈지식인적 성격, 둘째 이기적인 성격, 셋째 운명론자적 성격, 마지막으로 정신적타자로서의 성격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 탈지식인의 성격

일본 역사상 메이지 시대만큼 급변하는 시대의 양상을 보여준 것도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조영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청일전쟁(清日戦争)과 러일전쟁(露日戦争)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의 자본주의(資本主義)는 점차 발전하여 국력 신장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기도 했다. 일본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빈부(貧富)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 중의 하나이다. 특히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대도시 유입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를 비롯한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생필품 품귀에 따른 물가앙등(物価昂騰)으로 서민 생활은 악화일로(悪化一路)를 걸었고, 불경기로 인해 실업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들 사이에는 입신출세주의(立身出世主義)와 물질만능주의(物質万能主義)가 만연하였다.[15]

15) 前掲書, 13p

조영석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소시키의 『그리고 나서 (それから) 』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목이 있다.

“서른 살이 되어서 유민으로 빈둥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못마따행”라고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에 대해 다이스케가 “결코 빈둥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는 내용의 많은 시간을 갖는, 상등인종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이것은 『피안저편까지(彼岸過ぎまで)』에도 등장하는데 이들 인물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지 않아도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회적 조직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견지하며 문명비판의 시점을 가질 수 있었던 상류계급의 부류를 일컫는 말이다.

『마음』의 「부인(시즈)」 역시 「선생님」의 이러한 생활방식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내가 사모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화두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이야기로 옮겨 갔다.
> “선생님은 왜 저렇게 집에서 공부만 하실 뿐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까?”
> “그이에겐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싫어하니까.”
> “시시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그것은 저로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만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역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엾지요.”
> “하지만 선생님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어디 아프신 데는 없지 않습니

까?”

“물론 건강하구 말구요. 특별히 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활동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나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알 수 없으니 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사모님의 말투에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입가만큼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겉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내가 신중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모님이 갑자기 생각나 듯 말을 꺼냈다.

“젊었을 때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딴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라면 언제쯤입니까?”

“학생시절.”

“그때부터 선생님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모님의 볼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私が奥さんと話している間に、問題が自然先生の事からそこへ落ちて来た。

「先生はなぜああやって、宅で考えたり勉強したりなさるだけで、世の中へ出て仕事をなさらないんでしょう」

「あの人は駄目ですよ。そういう事が嫌いなんですから」

「つまり下らない事だと悟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

「悟るの悟らないのって、――そりゃ女だからわたくしには解りませんけれど、おそらくそんな意味じゃないでしょう。やっぱり何かやりたいのでしょう。それでいてできないんです。だから気の毒ですわ」

「しかし先生は健康からいって、別にどこも悪いところはない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

「丈夫ですとも。何にも持病はありません」

「それでなぜ活動ができないんでしょう」

「それが解らないのよ、あなた。それが解るくらいなら私だって、こんなに心配しやしません。わからないから気の毒でたまらないんです」

　奥さんの語気には非常に同情があった。それでも口元だけには微笑が見えた。外側からいえば、私の方がむしろ真面目だった。私はむずかしい顔をして黙っていた。すると奥さんが急に思い出したようにまた口を開いた。

「若い時はあんな人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若い時はまるで違っていました。それが全く変ってしまったんです」

「若い時っていつ頃ですか」と私が聞いた。

「書生時代よ」

「書生時代から先生を知って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

奥さんは急に薄赤い顔をした。32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당사자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형태라는 것이다. 지식인의 사명은 '그만한 공부를 하게 해 준 자신의 가족과 사회에 대한 공헌에 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생각이고 이러한 인식이 일반론에 더 가깝다고 말 할 수 있음에도 「선생님」과 같은 최상의 엘리트는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즉 「선생님」의 학문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뿐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고차원의 정신적 삶을 추구하는 그 아무리 높은 사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다시 말해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선생님」은 사회생활은 하지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사회인식을 지니고 살지만, 그런 생활이 길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회의식도 잃어버린 채 스스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전엔 말이죠. 남 앞에 선다거나 나에게 질문을 받는다거나 할 때 모르면 창피한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모른다는 사실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 무리하게 책을 읽어보려는 의지가 나오지 않는 탓이지요. 뭐 간단히 말하면 늙어가고 있는 거죠.

以前はね、人の前へ出たり、人に聞かれたりして知らないと恥のようにきまりが悪

かったものだが、近頃は知らないという事が、それほどの恥でないように見え出したものだから、つい無理にも本を読んでみようという元気が出なくなったのでしょう。まあ早くいえば老い込んだのです。39p

이들은 다시 말해 자발적 실업자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자발적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 미적 향수, 문명비평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할 터인데 「선생님」 또한 전형적인 자발적 실업자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선생님」은 고상한 취미와 적당한 비평을 갖추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향해 내뱉어 지는 것이 아닌 자신 내부의 소리에만 그친다는 한계 또한 있다. 이것에 대해 최해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소오세키가 말하는 '유민(遊民)'의 개념으로, 이것에 '고등'을 붙여 독자의 인간상이 된 것이 『피안저편까지(彼岸過ぎまで)』의 신조어 '고등유민'이다. '고등유민'은 '세상에 구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무리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친다 해도 곤란해 하지 않는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나는 고양이다(吾輩は猫である)』의 '태평일민(太平逸民)'도 이 '고등유민'을 희화화한 초기의 말로 '유민'이라는 일본 『広辞苑』에 '공직을 갖지 않고, 민간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16]

본격적으로 이러한 「선생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찾아보면 철저한 삶을 주장하면서도 불합리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앞뒤가 맞는 않는 모순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선생님」의 모습은 작품 내 도처에 깔려 있다.

16)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 일본연구 제 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2002,

「선생님」은 숙부에 대한 배신감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인간 전체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보이지 않는 모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숙부의 배신에 그만한 충격을 받고, 그 때문에 숙부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된 경우치고는 숙부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복수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는 비적극적인 태도는 과연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인가 싶다. 즉 이점에서 역시 선생님은 탈지식인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생님은 K를 예외적인 존재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신하는 모든 인간의 무리에서 제외한 채 자신의 하숙으로 스스로 불러들인다. 결국 「선생님」이 숙부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한 뒤 갖게 된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며 언제든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모순된 전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부인」에게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은 적어도 「K」와 「부인」에게는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부인」에게 가장 잔인한 배신행위 일 수 도 있는 자살을 감행함에 있어도 「선생님」의 이중성을 엿 볼 수 있다.

여자라고는 아내 밖에 모른다고 주장하는 「선생님」이지만 처음 아가씨(시즈, 나중의 부인)를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선생님」의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다. 처음 「선생님」은 아가씨에 대해 “이런 때에 웃는 여자가 싫습니다.”라고 말하며, 아가씨를 무의식적으로 깔보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금방 변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을 나중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 의외로 부인은 집을 비웠더군. 하녀도 부인과 함께 외출을 했다고 하더군. 그래서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K와 딸뿐이었지. 나는 잠시 고개

를 갸웃했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부인과 딸과 나만을 남겨두고 집을 비웠던 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지. 나는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생겼냐고 딸에게 다시 물었다네. 그녀는 그저 웃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 나는 이런 때 웃고 마는 그녀가 정말 싫었다네. 젊은 여성의 특징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녀 역시 정말 하찮은 일로 자주 웃는 그런 여자였다네. 하지만 그녀는 내 얼굴색을 보고 이내 표정을 되찾더니, 급한 볼일은 아닌데 잠깐 일이 있어 나갔다고 정색을 하며 대답하더군. 하숙을 하는 나로서는 그 이상 몰아댈 권리가 없었다네. 나는 침묵하고 말았지.

奥さんははたして留守でした。下女も奥さんといっしょに出たのでした。だから家に残っているのは、Kとお嬢さんだけだったのです。私はちょっと首を傾けました。今まで長い間世話になっていたけれども、奥さんがお嬢さんと私だけを置き去りにして、宅を空けた例はまだなかったのですから。私は何か急用でもできたのかとお嬢さんに聞き返しました。お嬢さんはただ笑っているのです。私はこんな時に笑う女が嫌いでした。若い女に共通な点だといえばそれまでかも知れませんが、お嬢さんも下らない事によく笑いたがる女でした。しかしお嬢さんは私の顔色を見て、すぐ不断の表情に帰りました。急用ではないが、ちょっと用があって出たのだと真面目に答えました。下宿人の私にはそれ以上問い詰める権利はありません。私は沈黙しました。

204p

하숙하기로 결정했을 무렵 아가씨의 서툰 꽃꽂이나 거문고 솜씨에 대해 처음에는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하고 지적인 사람이 못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가졌던 「선생님」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을 본 순간에 그러한 생각들을 순식간에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선생님」의 사고방식은 지성인이면서도 여인을 선택함에 있어 외모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사를 한 나는 방 안에 장식된 꽃병과 그 옆에 세워진 거문고를 보았다네. 솔직히 그 어느 것도 내 맘에 들지는 않았네. 나는 시와 책, 그리고 차를 즐겨 드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중국풍의 취미가 몸에 배어 있었네. 그 때문인지 어느 틈엔가 이런 종류의 장식을 경멸하는 버릇이 생겼던 거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모은 많은 작품들이 숙부님 탓에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중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네. 나는 고향을 떠나면서 그것들을 동창에게 맡겼지. 그리고 그 중 마음에 는 네, 다섯 작품을 가방 속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네. 그리고 옮기자마자 그것들을 꺼내어 벽에 걸고 즐길 생각이었지. 그런데 지금 말한 거문고와 꽃병을 보자 갑자기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었네. 나중에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 꽃은 나에 대한 환영의 뜻으로 장식한 것이라고 하더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지. 거문고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달리 옮길 곳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세워 놓았다더군. 이정도 들으면 이제 당연히 자네의 머릿속엔 젊은 여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지 않는가? 물론 이사를 한 나 역시 이사 전부터 그런 호기심이 발동하고 있었다네. 이런 장난기가 오히려 나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아니면 아직 내가 사람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인지, 나는 처음으로 하숙집에서 그녀-하숙집 외동딸을 말하네-와 마주쳤을 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도대체 어떻게 인사를 나누었는지 모를 정도였다네. 그녀도 나를 보고 얼굴을 붉히더군.

나는 그때까지 미망인의 자태나 태도로 미루어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던 상태였다네. 하지만 그 상상의 결과란 그녀에게 그다지 득이 되지 못할 그런 것이었지. 군인의 아내니까 저렇겠지, 그리고 그런 미망인의 딸이니 이렇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에 생각을 이어간 결과가 빚어낸 내 추측은 결국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만 셈이지.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내 추측이 모조리 빗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그리고 내 머릿속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성이라는 향기가 새롭게 가슴으로 파고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네. 그리고 그때부터 꽃병이 그렇게 맘에 들 수가 없더군. 옆에 있던 거문고 역시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져 버렸지.

私は移った日に、その室の床に活けられた花と、その横に立て懸けられた琴を見ました。どっちも私の気に入りませんでした。私は詩や書や煎茶を嗜なむ父の傍で育ったので、唐めいた趣味を小供のうちからもっていました。そのためでもありましょうか、こういう艶めかしい装飾をいつの間にか軽蔑する癖が付いていたのです。

私の父が存生中にあつめた道具類は、例の叔父のために滅茶滅茶にされてしまったのですが、それでも多少は残っていました。私は国を立つ時それを中学の旧友に預かってもらいました。それからその中で面白そうなものを四、五幅裸にして行李の底へ入れて来ました。私は移るや否や、それを取り出して床へ懸けて楽しむつもりでいたのです。ところが今いった琴と活花を見たので、急に勇気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後から聞いて始めてこの花が私に対するご馳走に活けられたのだという事を知った時、私は心のうちで苦笑しました。もっとも琴は前からそこにあったのですから、これは置き所がないため、やむをえずそのままに立て懸けてあったのでしょう。

こんな話をすると、自然その裏に若い女の影があなたの頭を掠めて通るでしょう。移った私にも、移らない初めからそういう好奇心がすでに動いていたのです。こうした邪気が予備的に私の自然を損なったためか、または私がまだ人慣れなかったためか、私は始めてそこのお嬢さんに会った時、へどもどした挨拶をしました。その代りお嬢さんの方でも赤い顔をしました。

私はそれまで未亡人の風采や態度から推して、このお嬢さんのすべてを想像していたのです。しかしその想像はお嬢さんに取ってあまり有利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軍人の妻君だからああなのだろう、その妻君の娘だからこうだろうといった順序で、私の推測は段々延びて行きました。ところがその推測が、お嬢さんの顔を見た瞬間に、悉く打ち消されました。そうして私の頭の中へ今まで想像も及ばなかった異性の匂いが新しく入って来ました。私はそれから床の正面に活けてある花が厭でなくなりました。同じ床に立て懸けてある琴も邪魔にならなくなりました。167p

또한 이러한 탈지식인성은 아가씨와의 결혼을 결정할 때도 나타난다.

최종적으로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K」에 의지했다는 점에서 아가씨에의 사랑이 스스로의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가 나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부인에게 전할 마음이 없었던 나는 “아니오”라고 말 한 뒤 금방 내 자신의 거짓말에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별달리 부탁을 받은 것은 없으며 그에 대한 용건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네. 부인은 “그래요?”라고 말하고 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네.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되었지. 나는 갑작스럽게 “부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네. 부인은 내가 예상했던 만큼은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네. 하지만 한동안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기만 하더군. 한 번 말을 꺼낸 나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십시오. 제게 꼭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 그리고 “따님을 꼭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말했다네. 부인은 연륜이 있는 만큼 나보다 훨씬 침착했다네. “주는 건 괜찮지만,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 아닌가요.”하고 부인이 말했다네. 내가 “급하게라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군. 그리고 “충분히 생각한 건가요?”하며 다짐을 하는 것이었다네. 나는 말을 꺼낸 것은 갑작스러웠지만, 생각은 오랫동안 했다면 그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네.

「Kから聞かされた打ち明け話を、奥さんに伝える気のなかった私は、「いいえ」といってしまった後で、すぐ自分の嘘を快からず感じました。仕方がないから、別段何も頼まれた覚えはないのだから、Kに関する用件ではないのだといい直しました。奥さんは「そうですか」といって、後を待っています。私はどうしても切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した。私は突然「奥さん、お嬢さんを私に下さい」といいました。奥さんは私の予期してかかったほど驚いた様子も見せませんでしたが、それでも少時返事ができなかったものと見えて、黙って私の顔を眺（なが）めていました。一度いい出した私は、いくら顔を見られても、それに頓着などはしていられません。「下さい、ぜひ下さい」といいました。「私の妻としてぜひ下さい」といいました。奥さんは年を取っているだけに、私よりもずっと落ち付いていました。「上げてもいいが、あんまり急じゃありませんか」と聞くのです。私が「急に貰いたいのだ」とすぐ答えたら笑い出しました。そうして「よく考えたのですか」と念を押すのです。私はいい

出したのは突然でも、考えたのは突然でないという訳を強い言葉で説明しました。
247p

「선생님」의 인간에 대한 불신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한 예로 「선생님」이 외출하고 「나」와 「부인」만이 남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과거의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명 나라는 청년과 부인과의 사이에서의 불륜도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생님」 스스로도 자신의 불합리함과 모순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도 없는 아버님의 병환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자네가 집을 비울 수 있겠는가. 오리혀 아버님이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내가 실례를 범했다고 할 수 있지. 사실 나는 그 전보를 칠 때 아버님의 일일랑 까맣게 잊고 있었다네. 그런 주제에 내가 도쿄에 있을 때는 난치병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던가. 나란 사람은 이런 모순 덩어리라네.

あなたの大事なお父さんの病気をそっち退けにして、何であなたが宅を空けられるものですか。そのお父さんの生死を忘れているような私の態度こそ不都合です。——私は実際あの電報を打つ時に、あなたのお父さんの事を忘れていたのです。そのくせあなたが東京にいる頃には、難症だからよく注意しなくってはいけないと、あれほど忠告したのは私ですのに。私はこういう矛盾な人間なのです。144p

「선생님」은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자아에 집착해 있는 한편으로 스스로 모순에 가득 찬 존재이며 윤리성이 결여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끝내 자신이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고집은 버리지 않고 싶어 한다. 이렇듯 불합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인 정황으로도 인정되는 한편 「선생님」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소세키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순으로 인한 이중성과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의 극복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행인 (行人) 』의 이치로(一郎)는 절대의 경지를 인정하면서도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이중성에 한탄한다.

> "요컨대 나는 지도를 펼쳐놓고 지리를 조사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 (중략) 나는 멍청한 사람이다. 나는 모순된 존재다."
> 要するに僕は図をひらいて地理を調査するひとだったのだ。 (中略) 僕は迂濶なのだ。
> 僕は矛盾なのだ。 17)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중인물들은 이러한 이중성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다운 모습이라고도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이기적인 성격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에고이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작품론적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이 발동되어 인간은 마치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며, 이점은 그 어떠한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대변해 주는 듯싶다.

「아가씨(나중의 부인)」를 얻기 위해 친구인 「K」를 비난하지만 이기심에 눈 먼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빚게 될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

---

17)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일본학보, 일본연구, 2002, 193p

「선생님」은 사랑을 위한답시고 타인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눈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이윽고 「선생님」 또한 사랑 때문에 인간은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의 비열함과 추악함을 깨닫게 된다.

> K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나는 단일격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겠다는 점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곧 그의 허를 찔렀던 것입니다. 나는 그를 향해서 갑자기 엄숙한 새삼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책략 때문이었습니다만, 그 태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긴장된 기분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스꽝스럽다거나 수치라는 감정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내뱉었습니다.
> Kが理想と現実の間に彷徨してふらふらしているのを発見した私は、ただ一打で彼を倒す事ができるだろうという点にばかり眼を着けました。そうしてすぐ彼の虚に付け込んだのです。私は彼に向って急に厳粛な改まった態度を示し出しました。無論策略からですが、その態度に相応するくらいな緊張した気分もあったのですから、自分に滑稽だの羞恥だのを感ずる余裕はありませんでした。私はまず「精神的に向上心のないものは馬鹿だ」といい放ちました。238p

상대의 약점을 향해 비수를 던지는 「선생님」. 그의 비열하고 이기적 경향이 잘 엿보이는 대목이다.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K」가 언젠가 자신에게 사용했던 말을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K」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욕은 물론 설령 욕망을 떠난 사랑 그 자체도 도(道)를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의미였다.

나는 K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을 심중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매복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의 나는 설령 속여서 골탕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략) K는 나를 나무라기에는 너무 정직했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너무 인격이 선량했던 것입니다. 눈 먼 나는 거기에 정의를 보이는 것을 잊고 오히려 거기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私はKと並んで足を運ばせながら、彼の口を出る次の言葉を腹の中で暗に待ち受けました。あるいは待ち伏せといった方がまだ適当かも知れません。その時の私はたといKを騙し打ちにしても構わないくらいに思っていたのです。しかし私にも教育相当の良心はありますから、もし誰か私の傍へ来て、お前は卑怯だと一言私語いてくれるものがあったなら、私はその瞬間に、はっと我に立ち帰ったかも知れません。もしKがその人であったなら、私はおそらく彼の前に赤面したでしょう。ただKは私を窘めるには余りに正直でした。余りに単純でした。余りに人格が善良だったのです。目のくらんだ私は、そこに敬意を払う事を忘れて、かえってそこに付け込んだのです。そこを利用して彼を打ち倒そうとしたのです。240p

이기심으로 눈 먼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빚게 될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말을 듣자 「K」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제발 그만둬”하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선생님」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괴로워하는 「K」를 향해 한마디 덧붙인다.

“그만 두라고. 내가 말을 꺼낸 게 아니야. 원래 네 쪽에서 꺼낸 말 아니야? 그러나 네가 그만 하라면 그만 해도 좋지만 단지 입술로만 그만 둔다고 해서 무슨 소용 있어. 네 마음에서 그것을 그만둘 만한 각오가 없다면 도대체 자네는 자네의 평소 주장을 어떻게 할 작정이야?“

「止めてくれって、僕がいい出した事じゃない、もともと君の方から持ち出した話じゃないか。しかし君が止めたければ、止めてもいいが、ただ口の先で止めたって仕方があるまい。君の心でそれを止めるだけの覚悟がなければ。一体君は君の平生の主張をどうするつもりなのか」241p

이기심으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인 「선생님」의 머리는 바쁘게 돌아가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 하자"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그의 말에도 이상하게 비통한 곳이 있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K는 "그만 해줘"하고 이번에는 부탁하는 듯이 고쳐 말했습니다.

「もうその話は止めよう」と彼がいいました。彼の眼にも彼の言葉にも変に悲痛なところがありました。私はちょっと挨拶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するとKは、「止めてくれ」と今度は頼むようにいい直しました。241p

「선생님」은 일찍부터 정신적인 면에서 「K」쪽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책략으로 이기긴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졌다"라는 느낌이 「선생님」을 괴롭게 한 것이다.

「K」가 자살했을 때도 「선생님」은 먼저 유서부터 살펴본다. 유서의 내용은 간단하고, 추상적이기만 했지만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미래의 전망이 없으므로 자살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리고 부인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으며 아가씨에 관한 것은 일체 적혀 있지 않았다. 즉 「선생님」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끼쳐질 영향부터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가씨의 이름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인간의 이기심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네. 그리고 이내 책상 위에 놓여진 편지를 찾아냈지. 그것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내 앞으로 쓰여진 편지더군. 나는 정신없이 봉투를 찢었다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네. 나는 그 속에 내가 참아내기 어려울 그런 문구들이 즐비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만약 그 편지를 부인이나 딸이 보게 된다면, 나를 얼마나 경멸하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느꼈다네. (중략)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했네. 그리고 매우 추상적이었지. 자신은 의지가 약하고 실행력이 없는 인간으로 도저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내용뿐이었다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한 예가 아주 간단한 문구로 이어지고 있었지. 보살펴 준 김에 자신이 죽은 뒤의 신변정리도 부탁한다고 했네. 그리고 부인에게는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 달라는 글귀도 눈에 띄었다네. 고향에 내가 알리길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네. 필요한 말은 모두 한마디씩 적혀 있었지만, 딸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네. 하지만 나는 이내 K가 일부러 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무어보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남은 먹물로 덧붙인 듯이 보이는 '좀 더 일찍 죽었어야 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일까'라는 글귀였다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네. 그리고 일부러 눈에 쉽게 띄도록 원래 놓여 있었던 책상 위에 놓았지.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처음으로 맹장지에 힘차게 흩뿌려진 핏자국을 보았다네.

それでも私はついに私を忘れる事ができませんでした。私はすぐ机の上に置いてある手紙に眼を着けました。それは予期通り私の名宛になっていました。私は夢中で封を切りました。しかし中には私の予期したような事は何にも書いてありませんでした。私は私に取ってどんなに辛い文句がその中に書き列ねてあるだろうと予期したのです。そうして、もしそれが奥さんやお嬢さんの眼に触れたら、どんなに軽蔑されるかも知れないという恐怖があったのです。（中略）手紙の内容は簡単でした。

そうしてむしろ抽象的でした。自分は薄志弱行で到底行先の望みがないから、自殺するというだけなのです。それから今まで私に世話になった礼が、ごくあっさりとした文句でその後に付け加えてありました。世話ついでに死後の片付方も頼みたいという言葉もありました。奥さんに迷惑を掛けて済まんから宜しく詫をしてくれという句もありました。国元へは私から知らせてもらいたいという依頼もありました。必要な事はみんな一口ずつ書いてある中にお嬢さんの名前だけはどこにも見えません。私はしまいまで読んで、すぐKがわざと回避したのだという事に気が付きました。しかし私のもっとも痛切に感じたのは、最後に墨の余りで書き添えたらしく見える、もっと早く死ぬべきだのになぜ今まで生きていたのだろうという意味の文句でした。

私は顫える手で、手紙を巻き収めて、再び封の中へ入れました。私はわざとそれを皆なの眼に着くように、元の通り机の上に置きました。そうして振り返って、襖に迸っている血潮を始めて見たのです。256p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장티푸스로 급사한 형님 내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재산을 횡령하려 한 숙부와 다르지 않다. 한 없이 원망하던 숙부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이중성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간에 대한 불신을 더 살펴본다.

신용하지 않다니, 특히 당신을 신용하지 않는 게 아니오. 인간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信用しないって、特にあなたを信用しないんじゃない。人間全体を信用しないんです。39p

「선생님」의 삼촌에 대한 증오는 그가 돈을 보고 악인 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신용했고, 「선생님」에게 있어서도 자랑스러운 존재였

던 숙부가 자신을 배반했던 것에 대한 증오인 것이다. 나중에 “지나치게 정직한 내가 분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라고 「선생님」은 말 하는데, 결국 「선생님」은 후에 「K」에게 숙부가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한다.

이렇게 의심의 뿌리가 깊어진 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결국 인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어 아가씨마저 책략가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 내가 부인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 사소한 일이 점점 쌓여 가면서 의혹은 점점 깊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부인이 숙부님처럼 딸을 나에게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친절하게 보였던 부인이 갑자기 교활한 책략가로 내 눈에 비친 거였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네.
>
> 부인은 처음부터 사람이 없고 적적해서 하숙을 한다고 말했지. 나도 그것을 거짓이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네.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 이해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이 부인의 입장에서 결코 손해는 아니었지.
>
> 나는 다시 부인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네. 그렇지만 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강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어머니에 대해 제아무리 경계를 한다고 한들 그런게 어찌 가능하겠는가? 나는 혼자서 나 자신을 비웃었다네. 참 바보 같다고 욕한 적도 있었지. 하지만 그 정도의 모순이라면, 아무리 바보스럽다고 해도 그 정도의 고통으로 모든 것을 끝냈을 것이네. 부인과 마찬가지로 딸도 역시 책략가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나의 번민은 더욱 커졌지.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네. 그저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괴로움에 사로잡혔지.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는 딸을 굳게 믿으며 의심하지 않았던 걸세. 그러니 나는 미신과 신념

이라는 그 중간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 나에게 그 어느 쪽도 상상이었고, 또 다른 쪽은 진실이었다네.

私が奥さんを疑り始めたのは、ごく些細な事からでした。しかしその些細な事を重ねて行くうちに、疑惑は段々と根を張って来ます。私はどういう拍子かふと奥さんが、叔父と同じような意味で、お嬢さんを私に接近させようと力め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出したのです。すると今まで親切に見えた人が、急に狡猾な策略家として私の眼に映じて来たのです。私は苦々しい唇を噛みました。

奥さんは最初から、無人で淋しいから、客を置いて世話をするのだと公言していました。私もそれを嘘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懇意になって色々打ち明け話を聞いた後でも、そこに間違いは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ます。しかし一般の経済状態は大して豊かだというほど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利害問題から考えてみて、私と特殊の関係をつけるのは、先方に取って決して損ではなかったのです。

私はまた警戒を加えました。けれども娘に対して前いったくらいの強い愛をもっている私が、その母に対していくら警戒を加えたって何になるでしょう。私は一人で自分を嘲笑しました。馬鹿だなといって、自分を罵った事もあります。しかしそれだけの矛盾ならいくら馬鹿でも私は大した苦痛も感ぜずに済んだのです。私の煩悶は、奥さんと同じようにお嬢さんも策略家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疑問に会って始めて起るのです。二人が私の背後で打ち合せをした上、万事をやっているのだろうと思うと、私は急に苦しくって堪らなくなるのです。不愉快なのではありません。絶体絶命のような行き詰まった心持になるのです。それでいて私は、一方にお嬢さんを固く信じて疑わなかったのです。だから私は信念と迷いの途中に立って、少しも動く事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私にはどっちも想像であり、またどっちも真実であったのです。178p

주변의 모든 이를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선생님」 자신인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인간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모순을 품은 불신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숙부에게 기만당한 당시의 나는 타인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차 느끼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타인을 나쁘게 취급했을 뿐, 스스로는 아직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나 자신은 훌륭한 인간이라는 신념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K로 인해 보기 좋게 파괴되어 버려, 자신도 예의 숙부와 같은 인간이라고 의식했을 때, 나는 갑자기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정나미가 떨어진 나는, 자신에게도 정나미가 떨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叔父に欺かれた当時の私は、他の頼みにならない事をつくづくと感じたには相違ありませんが、他を悪く取るだけあって、自分はまだ確かな気がしていました。世間はどうあろうともこの己は立派な人間だという信念がどこかにあったのです。それがKのために美事に破壊されてしまって、自分もあの叔父と同じ人間だと意識した時、私は急にふらふらしました。他に愛想を尽かした私は、自分にも愛想を尽かして動けなくなったのです。265p

그의 재산을 횡령한 숙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밖의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그 때는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윽고 「K」의 자살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선생님은 비로소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3) 운명론자적 성격

『마음』은 「K」의 자살에 의해서 야기된 「선생님」의 자살이라는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으로서는 어찔할 수 없는 「K」의 자살에 의해서 암시된, 죽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인 채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선생님」의 고뇌를 통해서 인간의 복잡한 마음의 움직임을 그린 작품이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은 자신의 운명을 마감하려 한다.

나도 K가 걸었던 길을 K와 마찬가지로 걷고 있다는 예감이 때때로 바람처럼 내 가슴을 가로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私もKの歩いた路を、Kと同じように辿っているのだという予覚が、折々風のように私の胸を横過り始めたからです。268p

「선생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화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마지막에는 「K」가 그러했듯 그와 같은 운명을 걸어가게 된다. 즉 「선생님」은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의 화살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이미 예정된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재미있는 것은 『마음』의 「선생님」 역시 운명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내 맡겼지만, 마침내 그 운명을 받아들인 것은 또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미리 설정된 운명의 이중성을 엿 볼 수 있다.

「선생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면 염세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보던 「선생님」은 마침내 자살의 유혹을 받게 된다.

나는 다만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 느낌이 나를 K의 묘로 매달 가게 했습니다. 그 느낌이 나에게 아내의 어머니를 간호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느낌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라고 내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싶다고까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점점 경과하는 사이에 타인에게 채찍질 당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결심으로 몇 년간을 살아오며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매달 K의 무덤을 참배하는 것도 죄를 없애려는 노력이지만 참배하는 정도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 자신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선택한 진리의 몰두 또한 자기 내부의 죄의식은 이겨낼 수 없었다. 또한 부인의 어머니가 병이 나자 정성을 다해 간병하지만 이런 노력도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그 어떠한 노력도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다고 느낀 선생님은 죽음의 유혹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맞고 싶다까지 생각한다.

私はただ人間の罪というものを深く感じたのです。その感じが私をKの墓へ毎月行かせます。その感じが私に妻の母の看護をさせます。そうしてその感じが妻に優しくしてやれと私に命じます。私はその感じのために、知らない路傍の人から鞭うたれたいとまで思った事もあります、こうした階段を段々経過して行くうちに、人に鞭うたれるよりも、自分で自分を鞭うつべきだという気になります。自分で自分を鞭うつよりも、自分で自分を殺すべきだという考えが起ります。270p

이러한 운명의 이중적 양상에 대해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2002) 는 '운명의 아이러니와의 대결'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슈우젠지대환 후 소오세키 문학의 전개의 밑바탕을 흐르는 정서는 운명과의 대결, 보다 한정적으로 말하면 '운명의 아이러니'와의 대결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개인을 주재하는 운명의 문제는 일찍부터 소오세키가 천착해온 주제이기도 했지만 대환을 계기로 그것은 '운명의 아이러니'로서 보다 진지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코코로』의 '선생' 역시 운명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내맡겼으나, 마침내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마감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행위 역시 '선생'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운명은 아이러니컬한 면을 보

이기도 한다.

즉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결국 자살이라는 죽음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자처한, 운명이라고 만도 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論者가 말하고자 하는 이중성이 엿 보인다.

(4) 정신적 타자로서의 성격

고향을 떠나 도회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지식인들의 향리이탈(鄕里離脫)[18]적 모습은 정신적 타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진다. 학창시절 「선생님」과 「K」는 동경(憧憬)의 대상으로서의 도쿄(東京)를 그리며 꿈을 키워 나간다.

> 두 사람은 동경과 동경인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면서 6조 다다미 방 안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二人は東京と東京の人を畏れました。それでいて六畳の間の中では、天下を睥睨するような事をいっていたのです。187p

젊은 시절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싶어 했으며, 동경은 이러한 그들에게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되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근대화로 인하여 근대의식에 눈 뜬 자제들은 향리이탈이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도쿄를 자신들의 삶의 무대로 정한 「선생님」과 「K」는 결국

---

18)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일본학보, 일본연구, 2002, 187p
최해수는 향리이탈에 대해 모태라고도 할 수 있는 향리에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고집하는 지식인들의 삶의 형태라 표현하고 있음.

둘 다 고향을 상실하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다. 「선생님」의 경우 부모를 잃고, 숙부에게 일체를 의탁하고 나선 동경 유학길이 숙부로 하여금 재산횡령을 하게하고, 이로 인한 인간불신은 「선생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한다. 「K」의 경우 「선생님」이 숙부에게 기만당한 것과는 반대로 그 자신이 양가를 속이고, 결국 자신이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양가(養家)로부터도 실가(実家)로 부터도 방치되어 향리와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향리에 대해 「선생님」은 부모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동경으로 떠나며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향리이탈로서의 지식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안식처의 의도적 상실은 시골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며 살아간다. 자신이 의도하여 고향을 떠나 왔지만 언제까지나 고향을 그리워 한다는 데에서 論者가 말하고자 하는 이중성을 엿 볼 수 있었다.

「하・선생님과 유서」에서의「나」, 즉 「선생님」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면 각각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탈지식인 성격을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발전이나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는 탈지식인적인 모습이 선생님의 성격의 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직업의 선택이 사회에의 기여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아울러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선생님은 지식인으로서의 이중성이 엿 보이며, 또 하나의 탈 지식인적 성격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모습이 나타난다.

숙부에게 배신당한 뒤 모든 인간을 불신한다고 스스로 밝혔으면서도 자신의 자산 처분을 옛친구에게 맡기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모든 인간을 불신한다고 누차에 걸쳐 말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약도 없이 「K」를 자신의 하숙으로 끌어들였는가 하면, 사랑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 믿지 못하게 되었으면서도 선생님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와 부인만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두 번째, 이기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한 문제가 바로 이기적인 성격이며 「선생님」 유서의 주된 내용 역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삶을 어둡게 하는가에 있다.

「선생님」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이 존경했던 숙부가 재산을 횡령한 이후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고 있었던 「선생님」이 사랑의 이기심으로 인해 「K」를 배신하게 되면서 자신마저도 결국 자신마자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에 부딪치면서 고뇌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

세 번째로 운명론저작 성격을 들 수 있다. 자살하여 삶을 마감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운명으로 돌리고, 모든 질서가 운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며 운명에 순응하려는 운명론자적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타자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벗어나 자신의 정신과 육체의 중심을 대도시로 옮김으로서 자신과 고향의 유리된 삶의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第3章 결 론

지금까지 소세키의 『마음』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의 이중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선생님과 나」에서의 「선생님」과「나」의 이중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에게서 보여 지는 이중성은 결국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물로서의 이중성이었다. 또한 「나」의 몸은 근대를 살고 있지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아버지)과 근대 지식인(선생님)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양친과 나」에서는 메이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과거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나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과 외부적 기준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이중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하・선생님과 유서」에서는 선생님에게 주요 포커스를 놓고 사회와 격리된 채 불합리하고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는 탈지식인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탈지식인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와 유리된 존재도 시대정신에는 예외일 수 없음을 말 해 준다.

또한 아무리 완벽하고 철저한 삶을 살아가려 해도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외 없이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결국 이러한 모순적 성격을 지닌 인간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며 운명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지만 결국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모순에 모순을 더한 격이다.

『마음』은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작품으로 삶과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점은 「하・선생님과 유서」의 선생님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인

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중성을 이 작품을 통해 작가 소세키는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소세키 작품군에서는 특히 여성관이나 결혼관에서 이중성이 두드러진다. 소세키의 유교적 여성관이 가장 잘 표출된 것은 아사히 신문에 처음 연재된 『우미인초(虞美人草)』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여자란 가장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봉건적인 시대상의 여성을 제시하지만 여주인공 후지오(藤夫) 는 이같은 시대적 통념을 거부하고 오빠 고노(甲野)가 권하는 사촌 오빠 무네치카(宗近)와의 결혼 완강히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고노가 꺼려하는 오노(小野)와의 결혼을 희망한다. 오빠가 권하는 무네치카는 봉건사상이 짙은 인물로 후지오가 좋아하는 문학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지만, 오노는 고아지만 후지오와 뜻이 잘 맞고 수재인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

한편 오노는 사요코(小夜子)라는 은사의 딸과 사실상 약혼관계에 있었으나, 사요코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저 재미없고 시에 취미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반면 후지오는 교만하고 허영심은 많지만, 재색을 겸비한데다 대화가 잘 통해 사요코보다 후지오에게 더욱 호의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오노는 사요코에 관한 것을 비밀로 한 채 후지오와의 결혼을 추진하지만, 이내 사실이 알려지자 오노는 무네치카의 조언대로 사요코와의 결혼을 단행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요코라는 인물로 명치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적 여성규범상으로 제시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위 「과거의 여자」라고 불리운다는 모순성(이중성)이다. 그녀는 봉건사상이 짙은 구여성으로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의지하는 순박하고 나약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여성 역시 “어떻게든 후지오 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점에서 또한 論者가 주목하는 이중성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하듯 소세키 작품의 작중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이중성, 불신과 같은 것이 오로지 작가 소세키에 기인했다고만은 볼 수 없겠으나, 소세키의 인간 불신의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参考文献>

<用例出典>

『こころ』 岩波文庫, 2002

<全集>

『漱石全集』(第九巻), 岩波書店, 1994

<単行本>

江藤淳編 『夏目漱石』, 朝日新聞社 , 1977

유상희 『こころ論』, 한국일본어학회, 1992

片岡良一 『夏目漱石の作品』, 厚分社, 1997

藤井淑禎『漱石文学全注釈』, 若草書房, 2000

조영석 『나쓰메 소세키 문학세계』, 보고사 , 2001

정상철 『나쓰메 소세키 문학연구』, 제이앤씨, 2001

石原千秋外 『読むための理論』, 世織書房, 2001

권혁건편저 『나쓰메 소세키 작품 마음 (こころ) 연구』 , 제이앤씨, 2003

박순규 『마음』, 인디북, 2005

<辞典類>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日本語教育学会編『新版日本語教育事典』, 大修舘書店, 2005

<論文>

오경자 「作品研究夏目漱石〈こころ〉」연군논문집, 성신여자대학교, 1974

윤명노 「夏目漱石의 『こころ』에 관하여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1983

김광수「漱石의 後期 三部作의 構成에 관하여」, 일본학보, 한국일본어문학회, 1990

최연 「일본근대소설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자아의식에 관련한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1990

송현순 「『こころ』における語り手としての私」, 논문집, 우석대학교, 1992

유상희 「『こころ論』」 일본학보 제 29집, 한국일본학회, 1992

조영석 「 夏目漱石 의 초기 작품 연구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1993

유상희 「『吾輩は猫である』에 나타난 漱石의 女性觀」, 전남대학교 ,『교육론집』제 13집, 1993

김명신 「 夏目漱石の女性像 」일본어문학, 일본어문학회, 1995

이지숙「こころに 나타난 <まじめ>의 고찰」일본학보, 일본어문학회, 1996

조영석「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의 시대의식론」, 외국문화연구, 조선대학교, 1997

吳敬 「소세키 문학에 있어서의 〈夫婦関係〉」일본학보, 인문과학연구, 1998

유상희「夏目漱石의 이중적 의식구조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1998

부백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론 」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1999

오현수「나쓰메 소세키의 작가이전에 관한 일고찰 」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1999

최해수「近代知識人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 일본연구 제 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2002

류승규「미치쿠사론」일본학보, 일본어문학, 2003

권혁건「나쓰메 소세키 작품『마음』에 나타난 일본 사회문화 연구」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03

윤일「夏目漱石の『こころ』-Kの死と「心」の問題-」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2004

최연「 일본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일본어문학, 일본어문학학회, 2004
권혁건「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에 나타난 금전 고찰」문화콘텐츠연구, 동의대학교, 2005
권혁건「한국에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문학 연구성과와 과제 조명 -번역본과 단행본 출판을 중심으로-」일본학보, 한국일본학회, 2005
조영석 「소세키의 『마음』연구」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

<雜誌>

『国文学』, 「特集　漱石文学の世界」, 学灯社, 1969. 4
『国文学』, 「特集　漱石文学の原点」, 学灯社, 1973. 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日語教育	학 번	20068045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유 정 한문: 李 宥 定 영문: Lee You Ju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라인아파트 101동 509호				
연락처	(062)676-2937, (010)8300-2937 E-MAIL: kensaku8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소세키의 『마음(こころ)』 연구 - 「선생님」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Natume Soseki's Characters of 『KOKORO』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월 일

저작자 : 이 유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